

○ 경제의 윤리적 의미

김형민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1. 지구화 시대의 경제윤리

지구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은 우리들의 생활세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경제의 지구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¹⁾ 지구화의 원동력은 자신의 뜻에 따라 세계를 장악하려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과 그 소산이다. 기술발전은 생산의 생활주기를 축소하고 단기간에 많은 생산품을 산출하여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을 조성한다. 컴퓨터와 같은 과학발전의 도움으로 지식과 생산의 범지구적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구화는 각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약속하면서 인류의 생존을 돕는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지구화는 지역과 나라, 종족과 문화, 그리고 경제적 목적 간의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그러므로 지구화는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것만도, 그렇다고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지구화는 각 국가로 하여금 국가주의의 장벽을 넘어서게 함으로써 선

1) 지구화의 사회학적 개념을 위해 U. 벡, 『지구화의 길』(거름, 2000), 27-34.

진국과 개도국간의 보다 넓은 협동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지구화의 한 문명사적 현상인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더 많은 의사소통, 이해, 사회적 조화를 증진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단일 공간 안으로 연결시켜 모든 문화의 구조와 의미를 공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적 글로벌화는 가난한 국가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심각한 주변화를 가져왔다. 절대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외채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세계경제를 좌우하며 고용의 악화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의 위기가 왔다. 글로벌 경제는 복지사회의 이념과 제도들도 위협하고 현대국가를 민족국가에서 탈 민족국가로의 변용을 강요하면서 가난한 국가의 문화적 특징과 역사를 부유한 서구국가에 편입시키고 있다. 지구화는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늘날 지구화에 대한 윤리적 반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이념적 근거로 한 경제적 글로벌 리제이션의 이념과 메커니즘이 불평등하고 위험한 세계체제와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2. 부작용의 윤리로서의 경제윤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인간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삶의 방식이다. 마틴 루터의 말과 같이 ‘나는 것이 새의 것이듯 노동은 인간의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결핍된 존재요 이기심과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경제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부작용을 생산하기 마련이다. 자연이나 사회적 행위공간에서 우리 인간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인간행위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윤리적 숙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부작용이란, 말 그대로 행위자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해 생산한 부정적 영향이나 결과를 뜻한다.²⁾ 윤리에선 부작용을 ‘간접적 의도’라고 말하지만, 신앙에서 본다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죄의 현실이다. 경제행위가 낳은 대표적 부작용은 부의 일방적 편중, 물질만능주의, 절대적 가난, 부의 불평등한 분배, 실업 등과 같은 것들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천민자본주의가 활개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득 간의 격차를 넓히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마련이다. 경제적 이익의 무한정한 극대화나 물질에 대한 인간의 무한정한 소유욕은 우리 사회를 더 깊은 위기의 구렁으로 몰고 간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행위는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 우리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의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하는가? 소위 ‘행위의 이중효과’에 대한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³⁾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작용은 행위자가 원래 예상치 못했던 불확실한 결과이기에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아벨라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더욱 첨예화하여, 하나님은 외적 행위의 영향이 아니라 오직 각 개인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덕적 책임을 행위의 의도나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과 부작용에도 적용하였다. 예컨대, 누군가 갑자기 길에서 강도를 만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다가 강도를 죽이게 되었다면 그는 살인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행위자의 선한 의지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공정한 관계가 고려될 때 인정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도덕규범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질문만큼이나 그 규범을 행동에 옮길 때 생겨날 수

2)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P. Koslowski, "Wirtschaftsethik in der Marktwirtschaft. Ethische Ökonomie als Theorie der ethischen und kulturellen Grundlagen des Wirtschaftens", Ch. Matthiessen(hg.), *Ökonomie und Ethik* (Freiburg, 1990), 12f.

3) P. Koslowski, "Nebenwirkungen", J. Ritter; K. Gründer(hg.), *Hist. Wb. Philos.* 6 (Basel, 1984), 659-62.

있는 결과도 중요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행동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사려해 볼 때 행위의 결과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행위의 결과를 전혀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갈수록 합의된 윤리규범을 거부하고 윤리의 상대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도덕양식과 행동의 정당성은 그 결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결과를 고려하며 행동할 때만이 각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경제적 행위와 결단에 대한 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가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결정이 환경파괴와 같이 공동체적 삶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이는 분명 비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행위는 윤리적 행위와는 다르지만 경제적 행위가 비도덕적 결과를 생산한다면 윤리의 주제가 된다. 다시 다리 건설을 예로 들어 보자. 다리 건설은 도덕적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진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다리가 정역학에 따라 튼튼하게 잘 놓였다면 경제적 이성에 부합한 일이다. 하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다리가 붕괴되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3. 경제윤리의 이중성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의 교환과정을 통해 최대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중립적 사회체제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은, 경제는 도덕원칙에 구애받아서 안 되며 오직 경제적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경제주의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빵집 주인이 맛난 빵을 굽는 이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스미스도 원래는 도덕철학자였으나 경제적 판단의 기준만은 개인의 이익추구, 경제적 성과, 결과, 효율성에

두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를 윤리와 무관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경제적 행위는 경제적 합목적성이나 '소유와 비소유'라는 경제의 고유한 코드에 따라 움직이지 반드시 윤리적 척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경제가 인간의 문화적 규범과 소원과 필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경제행위가 여러 사회문제를 생산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를 윤리와 무관한 사회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경제는 인간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움직이기에 도덕에서 해방된 자유공간이 아니다. 경제학은 엄밀히 말해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다. 경제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도 경제학에서 새로이 인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경제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며 인간의 복지를 위해 봉사한다. 인간이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경제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목적은 아니다. 경제는 자유, 평화, 복지, 행복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역으로 경제를 순전히 도덕적 격률에 따라 규제하려거나 경제적 결정을 도덕적 규범에서 직접 연역하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 '경제의 도덕화'는 한 국가사회가 봉착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경제의 현실을 오직 이상적 이념에 따라 판단하고 재단할 위험성이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도덕화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사고와 실천은 경제제일주의와 경제도덕화라는 두 극단적 입장을 극복하고 윤리적 이상과 삶의 현실을 공정하게 중재할 때 완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위스의 윤리학자 리히는 개인의 능력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사물적합성'과 공동의 복지와 이웃사랑을 중시하는 '인간적합성'의 합리적 연결이 경제윤리의 중심과

제라고 주장하였다.⁴⁾

4. 기독교의 물질관

재물은 늘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며 주인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과 mammon(재물) 중에서 선택을 요구하시고(마 6:24), 탐심을 물리칠 것을 명하셨다(눅 12:15). 하지만 이와 같은 신앙전통은 돈과 재물을 영적 삶을 방해하는 악으로만 판단하는 소박한 기독교적 물질관을 낳기도 했다. 부를 얻으려는 노력이나 풍족한 생활 모두를 신앙에 합치하지 않는 삶의 양식으로 가르쳐왔다. 하지만 mammon(돈)이 생산이나 재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부의 긍정적 의미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마 19:16-26)가 부와 신앙의 모순적 관계를 보여 주는 성경의 사례로 사용되곤 했다.

비유의 말씀을 보자. 어느 날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자, 그 젊은이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지켜 왔다고 자신 만만하게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더 해야 할지를 물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본문말씀의 핵심을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젊은이의 행동에 두었다.⁵⁾ 하지만 당시 유대

4) A. 리히, 강원돈 역,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한국신학연구원, 1993), 85f. 참조.

5) 이하의 해석을 위해 T. Rendtorff, *Ethik. Grundelemente, Methodologie und Konkretionen einer ethischen Theologie Bd.II* (Stuttgart, 1991), 80ff. 참조.

의 풍습으로 본다면 부유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살았다. 이웃에게 물질적 도움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율법정신에 따라 자선의 신앙을 교육하고 실천해 왔다. 부자 청년도 이미 이전부터 많은 물질을 이웃을 위해 사용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젊은이는 자신감에 넘쳐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였다. 당시 유대의 신앙교육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답을 예상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즉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교육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많은 자선을 베풀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만하는 젊은이에게, 결코 누구라도 선한 행위만으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많은 선행을 무익한 것으로 선언할 때 옆에서 이를 듣는 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 젊은이 같이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며 살아온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19:25)?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는 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이 자선이나 선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부와 재물보다는 물질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주목한다. 자신의 마음을 물질적 부에만 두고 있는 사람은 헛된 것, 즉 생명이 아닌 것을 희망하는 자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반문하셨는데, 여기서 목숨이란 오직 이 땅을 위한 생명만이 아니라 오고 계시는 주님의 심판과 미래를 준비하는 생명이다.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는 가난을 예찬하지 않는다. 부에 대한 성경의 비판은 가난을 도덕적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경제행위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것은 신앙적 편견

일 수 있다.

5. 기본욕구의 충족

아프리카의 속담에 ‘인권은 아침밥을 먹으면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기본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독일의 희곡작가 브레히트도 ‘(채)먹은 후에야 도덕도 있다’는 말을 남겼다. 사실상 그날의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고상한 삶과 윤리를 논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기,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욕구는 매우 애매한 말로서 충동, 소원, 필요성, 기대, 관심, 사치 등의 개념들과 구분 없이 쓰인다. 이 개념의 명료화를 위해 다른 욕구와 상관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구적 욕구와 절대적 욕구, 우연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 부차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부차적 욕구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는지 불확실하며, 인간의 많은 욕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지 가리기도 쉽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본적 욕구충족이란 영양, 거주, 의복과 같이 한 가정에서 사적으로 필요 하는 최소한의 것이 충족됨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 생활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 예컨대 건강한 식수공급, 위생설비, 운송수단, 건강과 교육시설에 대한 요청과 일하기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임금의 노동을 마련할 것을 포괄적으로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인간적이며 만족스러운 환경과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생계 및 개인적 자유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는, 보다 질적으로 고상한 필요충족이 포함된다.’⁶⁾

국제노동기구는 기본욕구를 물질적인 필요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욕구까지도 포함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간을 영과 욕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인간의 기본욕구는 인간의 생존권, 교육권, 환경권, 참여권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요청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기본권 간의 필연적 연관성이 강조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 권리는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기본적 욕구충족이 없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경제적 욕구는 충족되어야 하고 주님께서도 이미 이를 허락하셨다(마 6:11).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간과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이 있다. 그것은 끝없이 욕망을 운작하려는 인간의 마음과 이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이다. 인간의 기본욕구는 충족되어야 하나 그 욕망은 끝이 없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 세계는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 줄 만한 자원이 없다. 경제발전이나 과학기술문화가 아무리 급속도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디는 이 지구가 모든 인류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할지 모르나 인간의 무한한 탐욕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욕망을 끝없이 채우려는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삶의 경험이고 인간을 구속하는 무서운 죄의 권세이다(롬 7:14-20).

무한한 인간의 욕망은 부패하고 죄에 물든 인간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물질의 양적 충족과 삶의 질적 향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마 16:26). 물질적 삶의 충족이 곧 바로 선하고 바른 삶의 성취는 아니다. 물질적 재화를 얻고

6) International Labour Office, *Employment, Growth and Basic Needs: A One World - Problem* (Genf, 1976), 7.

자 하는 노력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신의 삶의 바른 의미와 마음의 자리를 살피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살려는 삶의 의지는 결국 무한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엄하게 지어 주신 삶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용할 양식을 추구해야 한다.

6. 연대성의 지구화

지구화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통합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과의 연대행위를 통해 더욱 인간다운 지구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과제를 지고 있다. 위에 살펴보았듯, 인간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은 연대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오늘과 같이 세계경제의 위기로 가난과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행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후버의 말과 같이 우리의 세계는 경제적 행위의 지구화만이 아니라 연대성의 지구화를 필요하게 되었다.⁷⁾ 가난은 오늘날 경제성장에서 경시될 수 없는 부차생산물이기 때문에 경제는 자본의 확장 과정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체제이어야 한다. 이때 경제의 생산적이며 동시에 파괴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회는 죄의 현실과 사랑의 힘 사이의 긴장관계를 주목하는 기독교적 현실주의에 입각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그 대로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인간은

7) W. Huber, *Vertrauen erneuern. Eine Reform um der Menschen willen* (Freiburg im Breisgau, 2005), 90.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다. 사랑은 오직 타자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완성되고 연대하는 삶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윤리는 일찍부터 연대성을 이웃사랑과 형제애의 한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독일의 '바르멘 신학선언' 제3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제들의 공동체'로 고백함으로써 교회를 지배나 통치의 질서가 아니라 모든 형제와 자매, 특히 고난당하는 이웃과 연대하는 공동체로 이해하였다. 신앙인들은 현대사회와 또한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온갖 고난과 연대함으로써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어려운 우리의 경제현실은 더욱 급박하게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김형민 건국대학교(B.A)와 한신대학교(Th.B.)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와 독일 뮌스터대학교 신학부(Dr.theol.)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이며, 송실교회 협동목사와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으로 있다.